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 하나교회 소그룹 매뉴얼



복음으로 소속감을 주는 영적 가족

복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관계의 장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나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16길 17 02)522-9526 [www.gospel.or.kr](http://www.gospel.or.kr)

# 목 차

## I. 소그룹의 출발

1. 새로운 비전 .....	1
2. 소그룹의 정의 .....	2
3. 소그룹의 가치 .....	3
4. 소그룹의 목표 .....	4

## II. 소그룹의 전략

1. 삼각기둥 전략 .....	6
2. 생명주기 전략 .....	7
3. 코이노니아 전략 .....	8
4. 빈자리 전략 .....	10

## III. 소그룹의 실제

1. 소그룹 리더 .....	11
2. 소그룹 교제 .....	14
3. 소그룹 준비 .....	16
4. 소그룹 전도 .....	19
5. 점검 사항 .....	22

## IV. 소그룹의 열매

1. 평안의 매는 줄 .....	24
2. 사랑의 열매 .....	25

부록 : 소그룹 활용서식

## 소그룹으로의 초대

**하나교회 소그룹**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관계성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소그룹은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소속감을 주는 영적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보금자리**입니다. 소그룹 속에서 공동체가 창조되고 약간의 준비와 몇 가지 기본원리들을 통하여 소그룹은 사람들이 서로 잘 알게 되는 건강한 모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교회 소그룹은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살아있는 피와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체 교회 생활은 소그룹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이 하나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교회입니다.

하나교회 소그룹은 **성경공부, 그룹세우기, 전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균형 잡힌 보금자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구체적으로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그룹의 생명주기에 맞추어 적절히 구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원리와 기법에 입각하여 소그룹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공부**에 있어서 역동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장이 펼쳐지기 위하여 마음열기(Ice-breakers), 본문연구(Bible study), 보살핌(Heart-warmers)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토양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그룹의 일차적인 목적은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라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룹을 위한 적기인가? 고려해야만 할 특별한 상황들이 있는가? 내가 그룹을 인도할 사람인가? 등, 우리는 지혜와 인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며 또한 기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그룹세우기**는 이러한 소그룹을 어떻게 세울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하고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 소그룹에 필요한 자료가 어떻게 공급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소그룹활동에 초래할 수 있는 분열을 피하고 오히려 교회 사역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적부흥은 각 사람의 협력과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시127:1). 하나님이 항상 먼저 행동하십니다.

셋째, 전도를 위한 발사대 역할을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그룹을 통해 양육과 성장의 유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소그룹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전도와 봉사를 위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교회에서의 소그룹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소그룹 활동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데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원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 원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 그룹이 서로 돌보며 관심을 갖는 진정한 공동체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하 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동기로 시작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소그룹 활동에서 예상되는 문제는 성경공부 없는 행동, 창의력 없는 기도, 배려와 관심이 없는 교제, 솔직함이 없는 나눔, 책임감 없는 공동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출발부터가 새롭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일어나는 타성적인 개념을 벗어나 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곳으로 목표를 향하여 결집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교회 소그룹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수많 은 사람들과 교제 관계로 연결하여 풍성한 사역의 결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넘치는 복이 우리 모든 소그룹과 교회에 임할 것 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그룹을 통한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통하여 새 생명과 새 리더가 탄생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 지 하나님의 긍휼과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맛 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소속원이 주중 혹은 주일에 진행되는 소그룹 모임이 너 무 따뜻하고 은혜가 넘쳐서 모임이 있는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것입니 다.

생동감 있는 소그룹으로서의 보금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교회 한광수 목사 

# I. 소그룹의 출발

## 1.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세기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현실 속에 들어와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한 요구는 영적인 영역에까지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도자라면 이와 같은 새로운 물결이 가져다 줄 변화와 도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는 실패하거나 단명하게 될 것이다. 지도자가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거나 혹은 난제에 부딪칠 때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요소는 단체의 목적과 정체성이다. 지도자의 선명한 비전에서 교회의 목적과 정체성도 우러나온다.

우리가 올바로 세워 가야 할 조직은 교회이다. 다른 기구나 조직들이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동안, 교회는 어떻게 이 많은 변화들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자신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양자의 통합을 모색하여 그 방법을 발견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생명이 있으면 교회는 성장한다. 앞으로 교회 사역방향은 성장위주 보다는 복음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소그룹 사역의 목표는 건강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본래적인 원형을 소그룹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람의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셨고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나눔의 공동체였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켰다.

사실 이제까지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리더십은 절대적인 비중을 가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것은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대형 대중 집회와 설교위주의 교육 방식이었다.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에 있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추진력이 기여한 바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변화된 상황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미래 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되고, 정보 매체들을 통하여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고,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다. 양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도 개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리더십과 파트너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 2. 소그룹의 정의

로베스타 헤스테네스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 자리에 모이는 모임이다.”라고 하였다.

소그룹을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쉽게 정의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한다면 소그룹은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그룹은 루터의 말대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소그룹 역시 “믿음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미국에서 소그룹운동의 모체가 되었던 세렌디피티 하우스(Serendipity House)의 설립자 겸 총재였던 라이먼 콜먼(Lyman Coleman) 박사가 한번은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 수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다. 거기에서 콜먼 박사가 리더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만일 개인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달려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명의 친구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지금 누구누구에게 연락하겠는가?”라는 것이었다. 어떤 여자성도는 대학시절 같이 활동했던 동아리 자매들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대답했다. 남자 성도 두 사람은 먼저 군대 친구들에게 연락하겠다고 대답했다. 그 교회 담임목사님은 신학교 동기들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연락할 곳이 없다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두 시간여 동안 이것을 나누게 했고, 마무리 시간에 콜먼 박사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여기 있는 이 그룹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는가?”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유구무언으로 침묵만 지켰다고 한다.

복음적으로 건강한 소그룹은 사무적인 일을 실행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적인 일만 수행하는 곳도 아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돌봐주는 곳이다. 대형그룹 안에서는 그룹원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소형그룹 안에서는 그룹원들의 어려움을 쉽게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줄 수가 있다. 소그룹은 작은형태의 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진정한 영혼 돌봄의 사역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소그룹은 그곳에 속한 멤버들에게 언제나 마음이 가는 곳이어야 하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소그룹 멤버들로 하여금 소그룹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한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꼭 물질적인 해결이 아닐지라도 소그룹에서 어려움을 겪는 멤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주는 것 만해도 그에게 소그룹은 늘 고마운 곳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위기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것이 영적인 위기이든 어떤 형태의 위기이든지, 즉 ‘우리의 소그룹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의 소그룹은 단지 평화와 안정시대에만 오픈하는 곳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생각하고 찾는 곳인가?’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그룹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성경공부만 하고 추상적인 교리이야기만 하는 모임이라고 할 때 그것은 유명무실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 소그룹은 구원의 확신문제가 되든지, 영적평안을 구하는 문제이든지, 가정과 직장의 문제가 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서 같이 고민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나의 소그룹에 나를 도와줄만한 한 사람이 없다면 그 소그룹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소그룹은 적어도 나를 도와줄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건강한 소그룹으로 세워져가게 될 것이다.

### 3. 소그룹의 가치

소그룹의 가치는 열한가지로 말할 수 있다.

- (1)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다는 점
- (2) 그룹원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점
- (3)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점
- (4) 마음이 열려질 수 있다는 점
- (5)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
- (6) 서로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다는 점
- (7) 어떤 대화나 나눔이든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
- (8) 다른 그룹원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
- (9)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
- (10) 소그룹 확장을 위한 빈자리 채우는 전도가 용이하다는 점
- (11) 그룹배가에 대한 보람을 맛볼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유익들은 대형그룹에서는 얻을 수 없다. 전인적인 변화는 소그룹 안에서 일어난다. 대형그룹에서 말씀에 도전받고 어느 정도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한다. 그러

나 삶의 변화는 소그룹 안에 들어갈 때 일어난다. 초대교회가 역동성을 가졌던 이유는 그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가정 교회, 즉 소그룹으로 흠어져서 교제와 영적 돌봄과 새신자의 정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소그룹의 가치를 경험하는 일은 신약시대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에서도 맞볼 수 있었던 일이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서 율법을 낭독했을 때 백성들은 손을 들고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십 여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를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 그것은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에서였다.

느헤미야 8장 7절에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온다. 그들이 광장에 있는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뜻을 해석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다. 그 결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했다. 에스라는 대중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고, 레위인들은 다니면서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쳐준 것이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레위인을 가리켜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레위인들이 소그룹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주었다는 말이다.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해석해주고서 깨닫게 한 것이다. 구약시대에서도 말씀의 감격을 체험한 현장은 역시 소그룹이었다. 기술정보사회라는 고도의 기술사회(High Tech)에서 고도의 감격(High Touch)은 소그룹 안에서 가능하다. 삶을 변혁시킬만한 말씀을 통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곳은 소그룹이었다.

#### 4. 소그룹의 목표

소그룹의 1차적인 목표는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그룹 성경 공부의 목표를 교제권 형성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교제를 넘어 양육단계로 이끌어가겠다는 사역의 철학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하며, 양육에 투자를 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볼 때, 모든 소그룹 모델들은 동일하게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모델마다의 차이점은 “훈련을 선행해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룹이 구성된 후 모임 진행 후에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제자훈련의 경우는 모임의 리더가 되기 전의 장기간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고, 셀 모델에서는 예비리더의 기간과 함께 리



더가 된 후의 격주 리더훈련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역 모델에서는 리더가 되기 전의 사전 훈련은 없지만 리더가 된 후 매주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세렌디피티 모델의 경우에는 리더가 되기 전의 6단계 리더 훈련을 받은 후 매월 철저한 계속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 내 모든 소그룹은 4가지 목표를 가져야 한다.

첫째, 소그룹은 성경적인 사랑(십자가 사랑)으로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요13:35; 고전13:13; 갈5:13; 엡5:2; 요일4:7, 11, 21)

둘째, 교제와 연합을 강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행4:32; 롬12:5; 고전12:12, 25; 엡4:3, 5, 13; 요일1:3, 6-7)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

(롬14:19; 엡2:19-22; 4:11-16; 골1:10-12, 28, 2:6-7)

전도하는 것이든지,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든지 목표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넷째, 영적은사가 발휘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위의 소그룹의 네 가지 목표 가운데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소그룹 안에서 양육을 통하여 일꾼을 세워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 소그룹모임이 교제와 연합을 넘어서 양육과 훈련으로 들어갈 때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소그룹사역에 있어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소그룹사역의 목표를 교제와 나눔에 머무르게 한다면 그것은 소그룹을 교회성장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소그룹사역의 목표를 양육과 훈련으로 까지 연결시키는 사역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소그룹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통로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소그룹사역은 교회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통로다.

소그룹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치를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다. 소그룹모임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서부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소그룹모임이 교제와 나눔의 단계를 넘어서 그룹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과 훈련의 단계로 이끌어갈 때, 소그룹은 견고한 모임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될 것이다.

## II. 소그룹의 전략

소그룹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많은 전략들을 고안하고 정리할 수 있겠지만 4가지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마도 교회 내에서 소그룹 관리자들은 목회자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는데 소그룹 관리자들이 적어도 이 4가지 전략을 기억하며 소그룹을 이끌어 나간다면 역동적인 소그룹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지 전략은 각각 ‘삼각기둥 전략, 생명주기 전략, 코이노니아 전략, 빈자리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4가지 전략들은 긴밀하게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전략들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1. 삼각기둥 전략

건강한 소그룹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모든 전략의 기초가 되는 기본전략이다. 건강한 소그룹은 성경연구와 그룹 세우기, 그리고 모임의 확장을 통한 선교와 전도의 3대 요소가 필수적이다.

‘성경연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는 소그룹의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룹세우기’ 혹은 ‘보살핌, 교제’라고 일컬어지는 두 번째 요소는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 가는 결속 과정으로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요구되는 요소이다.

세 번째 요소인 ‘확장’의 요소는 일명 ‘빈자리’요소라고 일컫는데 소그룹 내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 가운데 항상 그 모임이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소그룹 활동이 처음 소개될 때 사람들은 소그룹 모임은 오로지 성경공부와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그룹 자체가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만 있는 상당히 지루한 모임이라는 인식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에 더하여 서로를 돌아보거나 이 모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향해서 섬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많이 상실하게 만들었다. 곧 소그룹 구성원들의 머리는 냉철하게 했고, 성경지식은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다. 또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것은 바로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의식이 팽배했던 시기가 있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 전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모임의 확장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소그룹의 건강성을 해칠 경우도 사실상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일부 소그룹에서는 다른 요소들은 젓혀 두고 그룹 자체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견고히 세워가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구성원들 서로간의 협력과 교제에만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특별히 80년대와

90년대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이 활발했던 시절, 청년부나 대학부 자체 집회 후 이루어지는 GBS 시간은 종종 그들만의 친목과 교제의 시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특별히 리더 훈련 과정이 박약하고 리더로 세울만한 인력층이 얇은 교회의 청년대학부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하게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모든 힘을 내부에 탕진해 버리는 경우 그 이후에 나타날 결과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다.

요약컨대, 각 교회에서 행해지던 지금까지의 소그룹 운동들은 많은 경우 다른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은 잊혀두고 오로지 한 가지 요소에만 몰두해서 소그룹을 이끌어가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고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 가지에만 열정을 소모했던 많은 교회들이 기진맥진하고 마침내 소그룹 사역을 포기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소그룹 사역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러한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실제로 성경연구는 건강한 소그룹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성경연구 한 가지 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다른 두 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그룹은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활용할 때 가장 뛰어난 사역을 이루게 된다. 건강한 소그룹을 운용하기 위해서 소그룹의 필수적인 삼대 요소를 균형 있게 표현한 “삼각기둥의 전략”이 필요하다.

## 2. 생명주기 전략

우선순위 전략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전략에서는 “최소의 연료를 가지고 최고의 연비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세 가지 요소들을 적절하게 안배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에 있다. 소그룹 인도자들은 지금까지 소그룹을 운용하면서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소그룹을 운영해 왔을 것이다.

**첫째는 정적인 운용방식이다.** 이것은 소그룹이 만약 90분 동안의 모임을 가진다면 30분간은 성경연구, 30분간은 공동체 세우기와 교제, 30분간은 모임의 확장을 위한 결단의 시간으로 가지는 것이다.

세 부분이 삼단 케이크처럼 똑같이 30분씩 삼등분 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이 정적인 운용방식의 특징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과거에 사용하던 구식 시스템이다.

소그룹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는 있지만 융통성이 없어서 소그룹이 성장하는 단계와 생명주기의 다양한 단계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들을 적절하게 평가하거나 반영하는 데는 실패하기 쉬운 방식이다.

**둘째는 동적인 운용방식이다.** 동적인 활동은 삼각기둥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

을 점검하고 그룹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그때마다 우선순위를 확인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 그룹의 단기적인 활동단계에 있어서 삼각기둥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성경연구, 그룹세우기, 확장) 가운데 한 가지에 나머지 두 가지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강조는 다른 측면들을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소그룹이 가지는 생명주기의 특별한 단계에서 필요한 요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만일 하나의 소그룹이 일 년 동안 모임을 갖는다면 여름 방학 한 달(7월 혹은 8월)과 겨울방학 두 달(12월과 1월)을 제외하고 9개월을 각각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소그룹이 처음 출범한 탄생 시기에는 그룹 세우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것이 성경연구와 확장의 요소보다 우선권을 갖는 것이다. 소그룹이 구성되고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대하게 된 시기에는 사실상 성경연구를 깊이 있게 하거나, 전도해야 할 필요성과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상당히 실천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운 시기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모든 참석자들이 그 모임 안에서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소그룹에 참석 할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우선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하나의 그룹으로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교제하는 것에 시간과 모든 활동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보다 깊이 있는 성경연구와 모임의 확장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다. 탄생의 시기가 지나가면 그룹 세우기를 위한 교제의 요소를 한 발짝 뒤로 돌리고 구성원들이 소그룹 안에서 보다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연구와 확장, 즉 선교와 전도에 대한 깊이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분위기와 시간으로 이끌어 나가면 된다. 소그룹의 생명주기에 맞추어 마지막 단계까지 소그룹이 가져야 할 삼대 요소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간을 배정하고 교과과정이나 교재활용을 한다면 그 소그룹은 훨씬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 3. 코이노니아 전략

이 전략은 소그룹이 탄생 시기에 그 소그룹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전략이다. 야구장에 나타나는 각 베이스들(1루, 2루, 3루, 홈베이스)은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결속되고 견고하게 완성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각 과정을 나타낸다. 이 아이디어는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이 홈베이스(궁극적인 코이노니아)를 향하는 과정에 각 베이스에 머무르며 내야를 한 바퀴 도는 야구 선수처럼 각 과정을 돌아서 목표 지점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1루 베이스는 **나눔**, 즉 **자기소개**의 과정이다. 소그룹에서 소그룹 자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성원 각자가 다른 참가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놓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루 베이스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

는 과정으로서 ‘자기소개’라고 부를 수 있다. 즉 부담 없이 “서로를 알기 위한” 시간이다. 이 기회에 모든 구성원들은 거추장스러운 외투를 벗어 걸어 놓고,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던 짐 보따리를 풀어놓고, 자신이 살아온 여정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다. 자신의 과거인 고향과 어린 시절의 추억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여정 가운데 과거 자신의 삶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영적인 순례의 과정에서 지금의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장차 미래에 어떤 비전을 품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에 대한 꿈과 소망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2루 베이스는 **긍정**의 과정이다. 2루 베이스는 1루 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소개하고 나누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이다. 구성원들이 한 구성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들 사이에는 ‘관계성’이 창조된다. 그러나 이 관계성은 단순한 ‘반응’이나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기술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다. 즉 2루 베이스에서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자기소개에 대해서 그의 삶의 이야기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전적인 긍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아디아포라) 이상 전적인 수용과 긍정의 의사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 자기소개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소그룹 내에 자신이 분명한 구성원이고, 배려 받는 느낌으로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2루 베이스에서는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 무엇(what)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저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소그룹 전체의 약속이 필요하다.

소그룹의 결속을 위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3루 베이스의 과정은 **목표설정**이다. 나눔과 긍정은 구성원들 상호간의 좋은 관계성을 이루어 주고, 좋은 관계는 거친 물결을 헤치고 항해하는 모험의 위험에서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따라서 3루 베이스에서는 보다 깊은 수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곳은 어떤 영역입니까?” 등의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에 대한 나눔은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따라서 3루 베이스의 과정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결속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마침내 1루, 2루와 3루를 효과적으로 거쳤을 때 그 소그룹은 홈 베이스인 온전한 교제의 상태인 코이노니아에 이르게 된다.

#### 4. 빈자리 전략

아주 간단한 준비를 통해서 실행될 수 있다. 모임 장소에 빈자리를 놓아두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모임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상징이다.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사람, 상처를 받았거나 소속될 곳이 필요한 사람, 영적 교제에 갈급한 사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임이 열려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빈자리인 것이다.

따라서 빈자리는 소그룹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삼대 요소 가운데 확장, 즉 전도의 요소를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대체로 견고하게 결속된 그룹일수록 타인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경직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높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소그룹 사역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소그룹을 탄생시키기 위한 **생명적 모판**으로서 소그룹 사역을 진행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소그룹이 열린 소그룹이어야 함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또한 빈자리는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그 자리에 와서 앉아야 할 사람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책임과 그 사람을 인도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실물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열린 소그룹으로서 항상 빈자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동기를 끊임없이 부여하는 것이다.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소그룹에도 역시 탄생, 성장 그리고 재탄생이라는 자연스러운 생명주기가 있다.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견고하게 결속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소그룹이 생명력을 가지고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소그룹에서도 사랑의 극치는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그룹이 또 다른 새로운 그룹을 탄생시켜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소그룹의 임무가 있다. 따라서 소그룹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출발할 때부터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 진행과정에서 언제나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탄생시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나눔에 대해 감사하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현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바라는 목표가 무엇인지 나눌 수 있다. 이 시기는 마치 이성교제에서 이제 막 데이트를 시작하려는 단계와 비교할 수 있다. 상대방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서로에 대해 알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에 골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약속을 서로가 목표설정을 하면서 맺는 과정도 거치게 된다.

궁극적으로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다 깊이 있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성경공부와 그에 맞는 교재가 필요하다. 이 시기에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빈자리를 만들어서 **영적인 성장만큼 수적으로도 성장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 Ⅲ. 소그룹의 실제

#### 1. 소그룹 리더

##### (1) 소그룹 리더의 개념

소그룹리더(CSO)는 최고영적지도자(Chief Spiritual Officer)이다. 비슷한 의미로서 우리가 최고경영인을 CEO(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말한다. 그것은 회사의 대표로서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가진 경영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베스트셀러 저술가이자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로서 켄 블랜차드 컴퍼니(The Ken Blanchard Companies) 회장인 Ken Blanchard는 자신을 가리켜 켄 블랜차드 컴퍼니의 최고 정신적인 지도자(Chief Spiritual Officer)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자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과 회사의 사명과 핵심가치를 잊지 않도록 매일 아침 전세계에 있는 280여개의 사무실에 인트라넷을 통하여 음성메시지를 발송한다고 한다. 소그룹리더(CSO)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최고의 영적지도자이다. 소그룹리더는 그룹원들의 영적상태가 건강한지 매일같이 확인해야 한다. 그룹원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한 교제가 지속되어지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통한 영적기쁨을 맛보고 있는지, 새생명을 얻는 전도인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부단히 살펴야 한다. 그룹원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영적감독의 일을 게을리 하게 되면 안 된다. 감독은 지시와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포함한다.

소그룹리더는 소그룹 안에서 최고 영적 지도자이다. 감독을 잘못 수행하게 되면 그것은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간섭이라는 말이 없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것을 두고서 간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인은 자신의 사무실이 빌딩의 맨 꼭대기 층에 있어서 최고 경영인이고 하지 않는다. 최고경영인은 회사경영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뜻이다. 소그룹리더가 최고영적지도자라고 할 때 그것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말이 된다. 최고경영인의 판단에 따라서 회사가 일어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 소그룹리더의 판단에 따라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다. 소그룹리더는 한마디가 중요하다. 소그룹리더인 당신은 최고영적지도자이다.

## (2) 소그룹 리더의 자질

“내가 인도하는 소그룹에는 독점쟁이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천성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자매는 모태신앙이라 성경에 조예가 깊고 훌륭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소그룹 성경공부 시간에 다른 소그룹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는 아랑곳없이 항상 자신이 생각하는 관점에 관해서만 그칠 줄 모르고 얘기합니다. 질문을 하면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대답은 끝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그녀가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기 때문에 리더인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토의는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고, 함께한 다른 사람들 역시 그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가 소그룹 모임이 끝나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소그룹은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면 마치 침묵하기로 맹세라도 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소그룹은 건강한 소그룹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나에게는 애초부터 소그룹 리더가 될 만한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위와 같은 경우는, 형태만 달리했지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질문들이다. “건강한 교회에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는 말이 한국 교회 안에 널리 퍼지고, 아울러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 리더가 누구여야 하느냐에 대한 **소그룹 리더십**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폭되고 있다.

성공적인 소그룹 모임이 되기 위한 지름길은 준비된 리더를 절대적으로 요청한다. “소그룹의 성패는 **준비된 리더가 열쇠**”이며 소그룹의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소그룹 리더가 될 자질이 있는가? 소그룹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격은 일단 F.A.T라는 세 가지 영어 철자만 기억해 놓는다면 큰 도움이 된다. F.A.T는 신실한(Faithful), 여유가 있는(Available),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Teachable)의 앞 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이다.

사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위대한 성경학자들만 출석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모태신앙으로 최소한 교회를 20년 이상 다녔고, 교회 분위기에 익숙한 이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Q.T.도 매일 빠짐없이 하고, 깊은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4~8명인 소그룹에 속해있는 영혼들을 책임 있게 돌보며,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성숙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리더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성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아직은 박약하고, 교회를 다닌 연륜이 짧으며, 완벽한 영성의 삶을 유지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F.A.T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제 F.A.T로 요약한 소그룹 리더십의 세 가지 특성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왜 이것들이 필요한 지를 살펴본다.



### ① 신실한(Faithful) 리더

무엇 보다 소그룹 리더십에서 요구되는 자질은 신실함(Faithful)이다. 그룹 리더십으로 신실성을 말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영역에 적용된다.

첫째,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영역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유능한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은 거의 확보된 셈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면 ‘신실한’이라는 단어는 곧 바로 ‘성장하는 삶’과 연결된다. 즉 하나님과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은 규칙적인 영성생활(기도, 말씀 묵상과 개인적인 성경공부)에 시간을 할애하고, 깨달은 사실을 삶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통해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이다. 결국 신실하다는 것은 삶이 완벽하거나 성자 같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둘째, 신실함은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에 적용된다. 소그룹 리더라면 모임에 참석하고 멤버들과 접촉하는 시간에 관심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리더가 모임에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도 대신 그룹을 맡아 줄 사람을 정해두지도 않고 모임에 빠지는 것보다 소그룹 멤버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없다. 만약 리더가 되기를 동의했다면 그것은 바로 모이는 시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로 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시간표에서 가장 우선권을 두고,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는 자세로 헌신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신실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 ② 유용한(Available) 리더

두 번째로 소그룹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헌신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의 자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소그룹을 위해 시간적 헌신을 할 만한 적당한 때가 아니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소그룹을 돕는 일이다.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인생의 때, 우선순위를 고려해보고 과연 소그룹을 이끌 여유가 있을지 정직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여유도 신실성의 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해외출장을 자주 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매주 모이는 성경공부를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에 갓 입학한 첫 아이와 네 살짜리, 그리고 젖먹이를 둔 어머니는 물리적으로 소그룹 리더를 감당하기에 어렵다.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구성원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힘이 든다면 일단 리더의 사역을 자제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조정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허비하는 시간들을 정리해서 리더로 충분히 섬길 수 있다면 시간표 향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하튼 현명한 소그룹 리더

라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전3:1) 라는 솔로몬 왕의 충고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

### ③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Teachable) 리더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거나 리더로서 남다른 기술이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우쭐대는지 아니면 누구에게든 가르침을 받기에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또 성령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는 소그룹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다.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리더는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로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나가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자세를 가졌다는 것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만이나 우월감으로 가득 찬 태도는 리더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소그룹 전체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소그룹을 망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된다.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 순간부터 완전무결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는 야고보 사도의 고백대로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결국 훌륭한 소그룹 리더가 되는 관건은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자신을 개방하며, 보다 낮은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

## 2. 소그룹 교제

소그룹운영 전략 가운데 “삼각기둥 전략”이 있다.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건강한 소그룹은 먼저 생명주기에 맞춘 성경 공부(Bible Study),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교제(Fellowship), 그리고 영적성장에 따라 빈자리를 채우는 전도의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만들어진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교제의 요소에 대해서 많은 소그룹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소그룹 안에서도 서로 나누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교제다. 소그룹사역의 일차적인 목표가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소그룹사역에 있어서 교제의 중요성이 크다. 교회가 소그룹사역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우들 간의 교제가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소그룹사역의 일차적인 목표가 코이노니아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단순한 교제(Fellowship)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소그룹의 교제는 성령의 교통이 있는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축도할 때 인용하는 고후13:13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교통**”(Fellowship of the Holy Spirit)이 소그룹 교제의 핵심이다.

소그룹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식탁교제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룹원들이 인간적으로 가까워졌다고 교회 지도자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인 유대로 형성된 소그룹은 언제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소그룹은 어떤 형태의 그룹으로 변질될지 모른다. 건강하지 못하게 변질된 소그룹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를 나는 PCS 그룹이라고 부른다.

성령의 교통이 없는 소그룹은 먼저 **정치적인 그룹**(A Political Group)이 될 수 있다. 성령의 온전한 교제가 없는 소그룹은 잘못되면 교회 안에서 좋지 못한 세력(Power Block)을 형성할 수 있다. 물질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여서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그룹은 교제한다고 사람을 만나면서 소위 자기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둘째로 성령의 교통이 없는 소그룹은 **논쟁적인 그룹**(A Controversial Group)이 될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소그룹은 언제나 토론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서로 나누면서 성령의 터치를 기대하지 않고 성경공부 본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생각을 발표하게 되면 나눔이 아니라 토론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셋째로 성령의 교통이 없는 소그룹은 **사회적인 그룹**(A Social Group)이 될 수 있다. 지극히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소그룹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인다. 성령이 없는 그룹에서는 인간적으로만 가까워 질 수 있다. 같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 공연장에 간다든지 운동경기장에 간다든지 레저오락에 참여한다든지 할 때 사회문화적인 소그룹으로 전락되기가 쉽다. 일차적인 목표인 교제권 형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활동할 수 있지만 소그룹이 어디로 가든지 성령의 교통을 떠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성간이라면 더욱 조심해야할 부분이다.

소그룹사역을 꺼리는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요인을 생각하고 소그룹사역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해서 소그룹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도 있지만 소그룹사역은 우리시대에 강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역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으며, 소그룹사역은 현재의 목회리더십의 분명한 대안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모임은 언제 어느 때 모이든지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교통은 소그룹이 PCS그룹으로 변질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영적백신이다. 소그룹리더는 소그룹모임을 인도할 때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늘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 요소다.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터치가 이루어질 때, 가장 건강한 소그룹의 본질을 재확인하게 된다.

### 3. 소그룹 준비

“몇 년째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는 이 집사님의 소그룹 인도 스타일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강의 스타일이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 마다 인도자인 김 집사는 강의하고, 질문하고, 함께한 구성원들은 여러 성경구절을 찾아 읽는 것으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한다.” 이런 형태의 소그룹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물론 전적으로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소그룹은 어떤 한 사람이 자신만의 특별한 은사를 연습하는 장이며,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인도자가 ‘원맨쇼’를 하는 소그룹이다. 한 사람의 인도자가 가르치고 상담하는 은사를 발휘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모임시간에 참석해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짧게 답하거나 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는 “**왜 소그룹으로 모이는가?**”에 대한 소그룹의 원래 취지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소그룹은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소그룹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의 활용을 통해 상호 섬김을 이루어 내는 적은 수의 모임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상호 섬김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은 소그룹만이 이루어 낼 수 있는 특권이다. 물론 대그룹에서도 은사의 발견과 은사사역은 일어난다. 그러나 대그룹에서는 모든 멤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과, 은사 발견이후 섬김의 현장과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또 대규모의 모임에서 어떤 은사들은 거의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그룹에서는 모두가 자기 은사를 통해 다른 구성원들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어 있고, 동시에 다른 구성원들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기꺼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상호 섬김의 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교회 안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편견 중에 또 하나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은 성경공부 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공부에만 치우쳐 가르치는 것과 학습능력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은사들은 잊어버리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소그룹은 결코 한 가지 은사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구성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선명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은사를 가졌을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함께하는 이들을 환대하고 누가 이야기 하든지 잘 경청하며,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세우는 은사를 가졌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소그룹이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저 앉아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경책이나 넘기는 학습현장으로 전락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른바 대그룹에서 시간적인 이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짜 맞은 은사들을 적용해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그룹 안에서 구성원들이 자기의 은사를 통해 서로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과정이 필요할까?

### 첫째, 분위기를 조성하라

소그룹 사역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느슨한 조직의 회중들을 만들어 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때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구성원들 사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는 이른바 서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를 향한 섬김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진정한 상호 섬김이 아닌 위장된 섬김은 구성원들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고, 급기야는 가면을 쓰고 섬기는 일로 인해 소그룹 참석 자체를 꺼리게 만들 수도 있다.

진정한 상호 섬김은 계획하거나 연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성령과 그룹 내의 다른 사람에게 굴복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이다. 따라서 진정한 상호 섬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섬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즉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개방적이고, 정직하고,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요청된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소그룹에서는 가식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개방적이고 정직해야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서로에게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상처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 종종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고 불쾌할 때도 있다. 그러나 소그룹 내에서의 상호 섬김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버릇없이 굴든지 기꺼이 상처를 감내하겠다는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 둘째, 인원수를 제한하라

소그룹 내에서 원활한 상호 섬김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아주 분명한 요소인데 자주 간과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만약 소그룹 내에서 상호 기꺼운 섬김을 원한다면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최대 7명 이내로 제한해야 효과적이다. 상호 교통하는 시간인 영적 사귄에 있어서 사랑관계는 경우의 수에 따라 총소요시간은 ‘ $N \times (N-1) \times \text{시간}$ ’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밀도 있는 섬김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소그룹을 통한 영적 재생산을 도외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소그룹의 인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친밀도가 낮아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지는 섬김의 빈도와 농도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소그룹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열둘을 택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내면적 생각과 기도, 그리고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처럼 하루 종일 제자들

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열 두 명 정도의 인원수도 좋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주중에 한 번 정도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물리적 상황이라면 소그룹의 인원수를 더 작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성원들 상호 간에 원활한 섬김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시간을 질적으로 잘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양적 ‘시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소그룹 전문사역자들이 계속적인 임상의 결과를 통해 권고하는 인원수는 4명에서 최대 7명 정도이다.

### 셋째, 자기의 일을 하게 하라

지금 소그룹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름 옆에 그들이 가진 은사들을 한 번 적어보라. 만약 각각의 명단 옆에 적을 만한 은사가 떠오르지 않거나 아예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상호 섬김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소그룹이다. 구성원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은사를 발휘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소그룹 안에서 서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저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구성원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단 한 사람은 현재의 ‘리더’밖에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리더 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저 리더가 던져 주는 것만을 받아먹기 위해 모임에 참석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는 아무런 섬김도 하지 않는 ‘산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구성원들의 은사가 무엇인가 추측하지 말고 그 은사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그들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소그룹에는 이미 리더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만 한 번도 가르쳐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른다. 또 깊은 기도에는 은사가 있는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믿음으로 권면하는 은사를 가진 이들도 있다. 그러므로 부단히 구성원들을 향해 그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발견된 은사를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호 섬김은 더욱 효과적으로 소그룹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

### 넷째, 섬김의 인연을 확대하라.

소그룹에서 섬김을 강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성원 상호 간의 섬김을 통해 견고한 팀워크를 형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 사회적 섬김(Diakonia)을 이루어 내는데 있다. 즉 구성원들이 서로 알게 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내부 지향적 섬김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그 관계가 자라면 그 그룹 안에 모인 믿음의 에너지를 분출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즉 상호 섬김은 구성원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어느 정도로 근사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의 출구인 셈이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들에게 복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며, 나아가 견고한 관계형성을 가진 한 팀이 지금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해 눈을 뜨고 움직인다면 그것만큼 멋진 소그룹 사역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상호 섬김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우리의 섬김을 요청하는 곳이 어디이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한 팀이 함께 팔을 걷어 부치고 허리를 굽혀 손을 내밀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외부적 섬김 과제를 꾸준히 개발하는 것은 성숙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마지막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에 대해 구성원들이 시큰둥한 태도를 갖는 원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리더만 섬기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다른 이들을 구체적으로 섬겨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섬김을 받아보지도 못한 소그룹에 애착이 갈리는 만무하다. 만약 지금이라도 기꺼이 상처를 받겠다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섬기기로 작정해 보라. 그렇다면 성공적인 소그룹은 결코 책에만 기록된 문자적인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 4. 소그룹 전도

### (1) 소그룹 전도의 특성

예전에는 교회마다 “대각성 전도집회”나 “새신자 초청 예배”같은 행사를 하면 대단했었다. 온 교회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교회의 큰 행사였다. 행사 당일 본당에는 빈자리 없이 빼곡하다 못해서 통로까지 의자를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단까지 올라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때가 생각난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도 집회를 하고 아무리 유명한 강사를 초대해도 예전 같지 않다. 전도하는 사람들도 예전의 그 사람이고 강사가 증거 하는 말씀도 예전의 그 복음인데 모여야 하는 전도대상자들은 예전의 그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시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시대보다 자기 시간을 아까와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시대가 변했다고 전도를 포기하고 마냥 때가 바뀌기를 기다려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새로운 시대에도 전도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전 방법이 아닌 새로운 전도방법이 필요하다. 사실 이 방법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방법은 원래 있던 옛 방법이다. 교회에 초청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와 보라’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예전에 초대교회가 했듯이 **교회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은 교회로 초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

고 한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찾아 갔다. 하지만 소그룹 전도 방법은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교회 전체가 찾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교회 전체가 찾아가 수 있을까? 소그룹은 그저 그리스도인 몇몇의 모임이 아니다. 소그룹은 그 자체로 양육과 경배가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이다. 이 작은 교회인 소그룹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장소로 찾아가는 것이 소그룹 전도이다.

소그룹 전도는 ‘그물질’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가 익숙해 있는 대부분의 전도방법은 낚시질 전도이다. 한 사람이 혼자서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을 책임지고 전도와 양육까지 다 맡는 방법이다. ‘낚시대’를 던져서 한 번에 한 마리의 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4:19)”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낚시질이 아니라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 사람 낚는 일은 혼자서 하는 낚시질이 아니라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물질이다. 그리고 그물이 견고하면 고기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소그룹 전도가 특별한 이유는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가되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인 소그룹 전체가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다. 사실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매가 맺히기까지 양육하는 과정까지 전도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런 지속적인 양육은 혼자 힘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다. 전도와 정착과 양육은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에베소서 4장 11-12절 말씀은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건강한 소그룹이 이루어져 소그룹이 작은 교회로서 온전히 기능을 하게 될 때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 (2) 소그룹 전도의 실제

소그룹 전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소그룹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한 소그룹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소그룹 구성원들 사이의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이다. 바로 이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가 소그룹 전도 방법을 마련한다. 소그룹 양육이 관계 확립에서 시작되듯이 소그룹 전도 또한 관계 확립에서 시작된다. 교회 안에서 열심이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밖에 있는 비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거의 없다.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게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소그룹 전도의 시작은 거룩을 위해서 단절한 이 관계를 다시 맺는 일에서 시작하다. 비 그리스도인들을 사귀십시오. 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어떤 식으로 생



각하는지 알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줄 때 소그룹 전도는 시작된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이전에 믿지 않던 때의 관계와는 목적에서나 그 양상에서나 달라야 한다. 이전에는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친구 되신 주님을 소개하는 관계, 그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기쁨의 근원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가는 발, 그를 이해해주시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먼저 인사를 나누며 안면을 익힌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한다. 성령께서 감동주시는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전한다. 소그룹 전체에서 이 사람을 위한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함께 기도한다. 소그룹 전체가 초청을 위한 모임을 마련한다. 소풍이나 영화 운동 경기 관람, 삼겹살 파티 등 쉽게 올 수 있고 부담이 없는 모임을 마련한다. 그 사람을 이 모임에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함께 만나서 소그룹 전체의 사람들과 안면을 익히게 될 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유한다. 물론 초청이나 권유를 거절하는 일이 더 많다. 거절당할 때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방문 판매하는 분들은 한 번 구입을 거절당할 때마다 ‘구입 하겠다.’는 말을 듣기가 더욱 쉬워진다고 한다. 심리학에서는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미안한 빛진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다음번에 상대방이 요구해 올 때는 그 미안한 빛진 마음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이다. 강하게 거절할수록 빛진 마음도 강해진다. 세일즈맨들은 이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끈질기게 찾아오는 세일즈맨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마저도 사게 된다. 세일즈맨들은 “거절당할 때마다 승낙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는 철칙을 갖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복음은 상품보다도 더 자주 거절된다. 왜냐하면 상품의 효용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복음의 효용은 체험해 보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절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초대할 새로운 사람이나 초대할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 된다. 왜냐면 소그룹 전도에서 전도대상자는 혼자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구성원 전체가 선정하기 때문에 전도의 기회나 대상은 혼자 전도할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다양하다.

소그룹 전도는 관계를 형성한 후에 이루어지는 전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전도가 성공한다면 전도된 분의 믿음의 성장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하다. 좋은 분재를 하나 만들려면 여러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도 걸린다고 한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분재보다도 더 가치 있다. 서두르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나를 이날 이 때까지 용납하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소그룹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소그룹 전도는 혼자 지는 짐이 아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 5. 점검 사항

우리사회의 삶의 패턴이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전에는 동네마다 구멍가게들이 쇼핑의 기초단계를 소화해주었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동네마다 편의점이 들어서 있다. 구멍가게에서는 항상 찾는 물건을 주인에게 물어야했는데, 편의점에서는 고객이 알아서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한 시스템이다.

소그룹 사역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면 알게 모르게 소그룹마다 편의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그룹모임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게 된다. 그래서 소그룹 정착 과정에서 리더는 소그룹모임이 타성에 젖어 들지 않도록 늘 살펴야한다. 비행기 조종사가 자동항법장치를 걸어 놓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 첫째, 적합한 모임장소를 확인하라

돌아가면서 그룹원집에서 모인다고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제3의 장소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곳은 신앙의 유적지나, 현장학습장소가 될 수 있고, 야외 피크닉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장소를 정하는 게 좋다. 그러나 모이기 쉬운 곳이라고 해서 그곳에서만 항상 모이는 것 보다 언제나 그 곳이 소그룹모임에 적합한 장소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겉으로 조용한 곳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영적분위기를 점검하고 모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 둘째, 충분한 모임시간을 확보하라

시간 보내기식의 소그룹모임이 아닌 진지한 영적 돌봄이 있는 소그룹모임을 가져야 한다. 소그룹 모임시간은 보통 두 시간 정도가 표준이다. 최소한 한 시간 반 정도는 투자해야 어느 정도 성경공부를 하면서 소그룹모임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주일에 소그룹모임을 갖고 있는 그룹들은 출석률은 높을지 모르겠지만 늘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충분한 나눔을 가질 수도 없고, 충분한 영적 돌봄을 가질 수가 없다. 펍시콜라는 소그룹 안에서 멤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으로 이끌어주는 일곱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다. 양육, 예배, 사명, 공동체, 투명성, 책임감, 그리고 기도 일곱 가지 요소가 멤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소그룹 안에서 이런 요소를 놓치지 않으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소그룹모임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모임을 한 주 연기하더라도 제대로 모여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 셋째, 영적인 발견이 있도록 하라

성경공부 교재를 곁핥기식으로 지나가지 말고 “발견”이 있는 소그룹모임을 지향해야 한다. 성경공부를 멋지게 마쳤다고 해도 거기에서 영적인 감화와 깨달음이 없었다면 삶의 변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로베르타 헤스테네스(Roberta Hestenes)는 “그리스도인의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

에 소규모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 자리에 모인 모임이다.”라고 정의했다. 소그룹에서 “발견”이 있어야 한다. 소수의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다 소그룹이 아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발견이 있어야 한다. 리더는 언제나 멤버들이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인도해야 할 것이다.

#### 넷째, **영적 재생산인 전도**가 되도록 하라

상당수의 소그룹들은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성경공부를 했으니 소그룹모임을 잘 마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적 재생산이 없는 소그룹은 결코 건강한 그룹이 될 수 없다. 전도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이게 되면 역동성을 잃게 된다. 초대교회 소그룹의 역동성은 불신자가 신자로 변화되는 현장을 날마다 소그룹에서 확인하는 데서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소그룹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소그룹 안에서의 전도다. 소그룹 안에서 빈자리를 하나씩 채워가자는 구호가 모일 때마다 제창되고, 빈자리에 앉을 주인공을 위하여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일을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도는 평생 하는 것이니 소그룹모임만 열심히 참석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영적 재생산 없는 소그룹은 건강하지도 못하고 역동성도 잃어버리기가 쉽다.

#### 다섯째, 준비하고 나올 **과제**를 제시하라

소그룹모임은 일차목표가 교제(코이노니아)에 있다. 일단 그룹 안에 교제권이 형성되면 소그룹은 지속적으로 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소그룹의 목표가 단순히 교제권형성에 있지 않다. 양육과 훈련도 포함되어진다. 그러므로 소그룹모임을 가질 때 리더는 멤버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그룹 생명주기(Life Cycle)에 맞는 과제를 단계적으로 주어야 한다. 초기과정에서는 과제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학습과제이외의 것일지라도 멤버들로 하여금 소그룹모임을 위해서 부단히 준비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멤버는 성경을 읽어오거나 단어를 찾아오거나 기도대상자를 적어오거나 기도제목 적어오기 등과 같이 간단한 과제를 준비하면서 그룹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분명한 소속감을 갖게 된다. 또한 소그룹모임에 참여하는 마음가짐 또한 달라진다.

## IV. 소그룹의 열매

### 1. 평안의 매는 줄

하나교회 소그룹은 1단계에서 복음을 나누고 2단계에서 교인들을 다른 교인과 연결시킨다. 3단계에서 리더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고 4단계에서는 깊은 영적 진리와 사역 방법을 가르친다. 이로써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다.

☞ 말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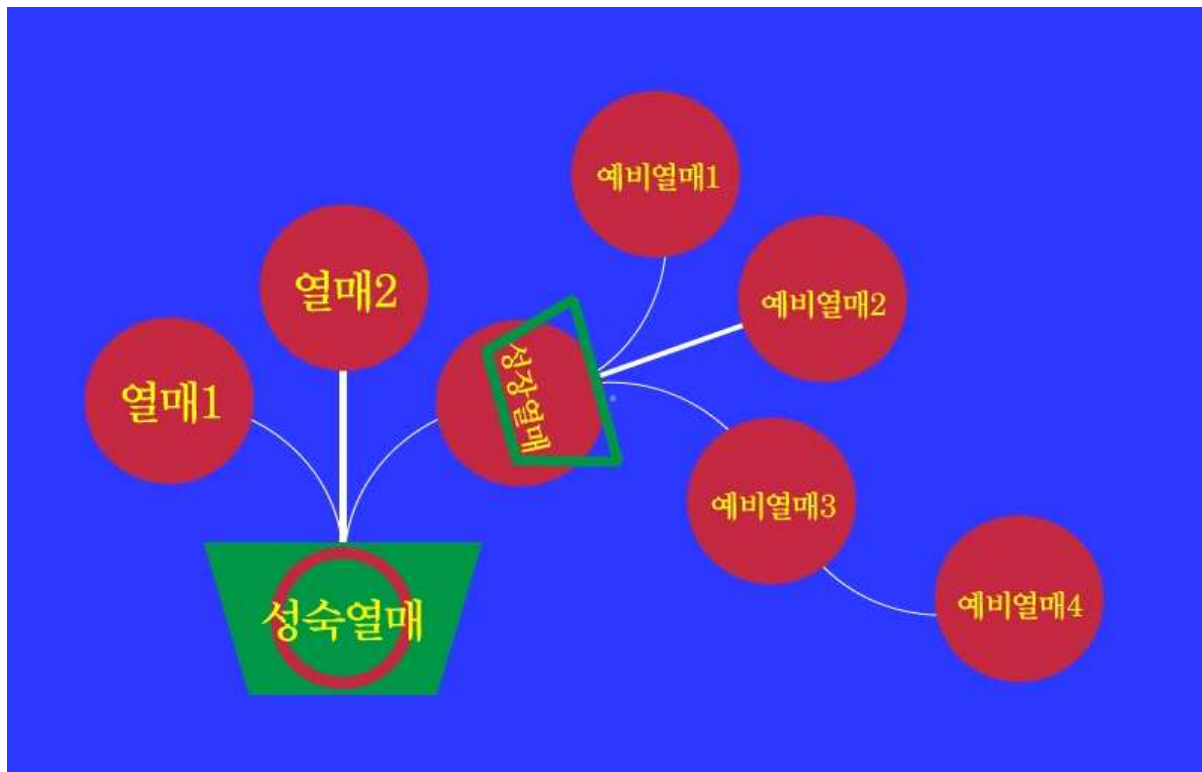
구분	소그룹으로 하나 되는 과정			
목표	말씀 ○→	●→ 신앙화	●→ 생활화	●→ 문화화
단계		사귄, 교제	봉사, 섬김	섬김, 지도
일치	말	맘	삶	리더
복음	영접	사랑 열정	인격 영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	예비열매1,2,3,4	열매1.2	성장열매	성숙열매
과정	나눔	연결	사역	제자
교재	101, 사영리	201, 202, 일대일	301, 십자가복음	401, 그리스도
지도	교회소개 관심	1대1일 양육 칭찬	봉사, 사역 제공 지도	리더십, 복음반복 진수
특징	필요로 하는 영적 유아상태, 교회를 나와 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자주 사용, 교회 다닌 경험에 있다고도 함, “착하게 살면 되지 구원이 왜 필요해요?”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과 교제 나눌 수 없어요” “예수만이 전부인가요? 다른 종교도 동일하게 봐야죠?”	리더가 인도하는 그룹 속으로 들어온 자, 종이 되기보다 나 위주로 생각. 친교모임, 시한폭탄, 사랑을 처음 경험함. 말 중에 “나”를 강조, “나”를 위하여 봉사. 아직 자기 가꾸기에 관심이 많음, 핑계를 많이 댈. 자기 공로를 인정받기를 바라고 칭찬듣기를 좋아함	타인중심으로 생활하기 시작, 긍휼함을 나타냄. 즐거워섬 섬기고 모이기를 기뻐함. 교회예배에 보이지 않는 인원에게 전화하기 시작함. 육적 욕구를 제어하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 개인보다 공동체를 위해 관심이 많고 적극 참여함. 헌신할 기회를 찾음.	다른 사람에게 사역기회를 주며, 그들과 섬김의 기쁨을 나눔. 리더를 육성하는 데 기꺼이 투자, 소그룹을 잘 준비와 책임이 강하여 솔선수범,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하고 영광을 오직 주께 돌림. 섬김과 리더십을 발휘함. 교회의 덕을 세움
성경	1:10 요일1:3 요3:16 요14:6 요15:5 사53:5	요14:20 엡4:3 롬5:8 고전1:18 엡2:21-22 고전4:15 골3:14 고전12:12 갈6:14	엡4:12 엡4:14-16 벧전4:9-11 갈5:13 딤후2:4 고전15:10 행1:8	마7:20 요15:8 엡2:10엡1:23 엡3:19 갈5:22-23 딤후2:15 마28:18-20 요13:35
교육 내용	신앙의 기초, 교회구조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미를 이해시킴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제자도, 제자와 과정을 설명과 양육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의 리더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 훈련	깊은 영적, 신학진리 수호와 영적 전투에서 전략 전술 제시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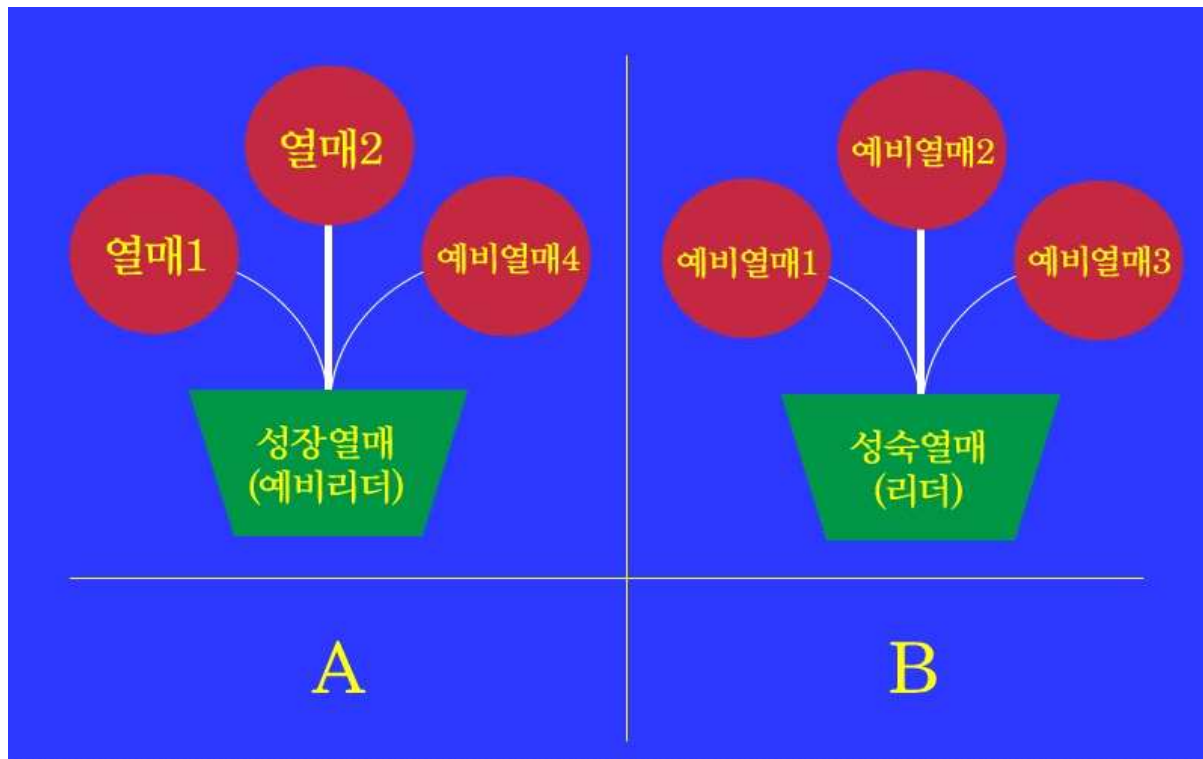
## 2. 사랑의 열매

✠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4:15)

✠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2:21-22).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 3:14).

교구 그룹장 : ○○○○				
소그룹명	사랑	화평	충성	온유
리더	홍길동	김사랑	이순신	전도자
예비리더	○○○	○○○	○○○	○○○
열매1	○○○	○○○	○○○	○○○
열매2	○○○	○○○	○○○	○○○
예비열매1				
예비열매2				
예비열매3				
예비열매4				





① 리더와 예비리더는 열매(1,2)를 키우고(양육) 예비열매(1,2,3,4)를 만들어야(전도) 한다. 소그룹에서 예비열매를 채우는 기간은 6개월 정도이다.

② 예비열매가 채워지면 리더와 예비리더는 새롭게 2개 소그룹으로 탄생한다. 이때 리더는 새지도자인 예비리더를 탄생시킨 아비(멘토)가 되고, 예비리더는 새로운 리더로서 그룹 내에서 예비 리더를 선출한다.

소그룹은 사랑의 교제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새지도자와 새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서로 삶을 고백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랑 공동체이다.

## 부록 : 소그룹 활용서식

### 소그룹 지원서 (소그룹 참여자)

당신자신에 관한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이름.....

주소.....

집 전화..... 직장 전화.....

결혼      ☐ 기혼      ☐ 미혼

현재의 거주지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당신은 출석교인이십니까?   ☐ 예      ☐ 아니오

교회에 출석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당신은 우리교회의 어떤 활동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전에 소그룹에서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경험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교회의 소그룹(보금자리)에 관하여 알고계십니까?

왜 소그룹에의 참여를 원하게 되셨습니까?

## 소그룹 리더 지원서 (리더 후보자)

(아래의 질문에 가능한 완벽하게 답해 주십시오. 이 지원서를 기초로 그룹장이 당신을 면담할 것입니다. 이 지원서의 복사본을 당신에게도 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과 신실함에 감사드립니다.)

이름 \_\_\_\_\_ 주소 \_\_\_\_\_ 이메일 \_\_\_\_\_  
전화번호 (집) \_\_\_\_\_ (직장) \_\_\_\_\_ 생년월일 \_\_\_\_\_ 성별 (남 / 여)

### 개인적인 배경

1. 이 지역에 얼마나 사셨습니까? \_\_\_\_\_
2. 재택 근무이십니까? 네 / 아니오
3. 독신, 기혼, 이혼, 별거, 사별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4. 아이들의 이름과 학년 \_\_\_\_\_
5. 우리 교회에는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_\_\_\_\_
6.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_\_\_\_\_
7. 우리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대, 성경공부....) \_\_\_\_\_

### 영적 배경

1. 언제부터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까? \_\_\_\_\_
2.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오. \_\_\_\_\_
3. 기도와 성경공부를 위해 하루의 어느 정도를 할애하십니까? \_\_\_\_\_
4.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보에 하나님이 주신 힘은? \_\_\_\_\_
5.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보에 장애물은 : \_\_\_\_\_

### 하나교회 생명그룹(보금자리)이나 다른 소그룹에 관여해 본적이 있습니까?

1. 가정에서 하는 소그룹 모임에 참가해본 적이 있다. 네 / 아니오
2. 그런 그룹에서 나는 멤버 인도자 보조인도자 초청자 기타
3. 그룹 모임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_\_\_\_\_

### 하나교회 생명그룹(보금자리)에 대한 현재의 관심

1. 우리 교회 소그룹(보금자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 \_\_\_\_\_
2. 생명그룹(보금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_\_\_\_\_
3. 인도자로서 나의 가장 큰 장점은 \_\_\_\_\_
4. 리더(인도자, 보조인도자, 초청자)로서의 가장 큰 두려움은 : \_\_\_\_\_
5. 기혼이시라면 배우자가 리더로서의 당신을 지원해 주니까? 네 / 아니오
6. 생명그룹(보금자리)의 리더로서 관심 있는 분야는 : 인도자 보조인도자 초청자

### 교리 선언문 나는 아래의 내용을 믿습니다. : (네, 아니오 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1.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며 내 죄를 용서 받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 아니오
2.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 아니오
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을 믿습니다. 네 / 아니오
4.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믿음을 위한 유일 한 신성한 규칙이자 표준임을 믿습니다.  
네 / 아니오
5.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배교하기 보다는, 설령 죽음이라 도 기꺼이 감당할 것을 결심합니다.  
네 / 아니오



## 소그룹 보고서 (리더)

그룹의 이름..... 날짜.....

인도자의  
이름.....

예비 리더  
이름.....

장소제공자의  
이름 .....

참가자의 이름	주소	전화	기호

● 기호 난에 방문자는 **방**, 재차방문한 사람은 **재방**, 새 신자는 **새 신자**,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교인**을 표시하십시오.

당신의 그룹의 모임은 어떻게 모이고 있습니까?

☐ 매주 여러 번      ☐ 매주 한 번      ☐ 한 달에 두 번      ☐ 매달

무슨 요일에 모이고 있습니까?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마칩니까?

다음의 활동에 드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아이스 브레이크 .....

그룹사역의 토의 .....

성경공부.....

기도시간 .....

당신그룹의 사역계획은 무엇입니까?

당신그룹은 분리시킬 준비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예상되는 그룹구성원과 접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1등급(지루함)부터 10등급(훌륭함)으로 평가한다면 최근 당신 소그룹경험은 몇 등급 입니까?

당신의 감사할 내용과 기도제목과 관심사항을 뒷면에 기록 하십시오.

## 직무설명서: 소그룹 모임 제공자

**요약** : 성공적인 소그룹 모임을 위해 모임의 장소를 제공한다.

**섬김의 기간** : 1회 이상 약속

**사역관계** : 모임제공자는 소그룹 인도자와 함께 일한다.

### 필요한 기술

-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할 수 있는 능력
- 산만하지 않은 성공적인 모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환경이 중요함을 이해
- 모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족들을 잘 다스리고 애완동물이나 다른 소음이 나지 않게 할 능력
- 다과를 준비할 능력

### 구체적인 임무

- 모든 손님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과 미소로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기
- 모든 사람이 앉을 충분한 좌석이 있는 편안한 가정을 제공하기
- 모임 전에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기 또는 다른 조원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다과를 담을 접시나 컵 네프킨과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
-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을 통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나 손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수용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 주기
-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 여분의 성경과 펜을 준비해 두기
- 가구를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일은 손님들이 다 떠난 후에 하기
- 사람들이 적당한 곳에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하기
- 당신의 가정에서 지키는 특별한 규칙에 관하여 인도자에게 말하여 주기
- 당신의 사정으로 가정을 모임장소로 제공할 수 없게 될 경우 미리 인도자에게 말하여주기
- 당신의 집에 아이들을 돌볼 공간을 마련하기로 동의한 경우 아이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

## 그룹선정을 위한 점검표

이 점검표는 당신이 인도해 보고 싶은 소그룹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식을 완성하게 되면 당신의 소그룹 책임자가 당신의 그룹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유연성:** 다음 1-10까지의 눈금은 당신이 인도하고 싶은 소그룹의 유형에 얼마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줄 것입니다. 이 눈금에서 10은 당신이 그룹의 유형에 대단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눈금 1은 당신이 인도하고 싶은 특정한 유형의 그룹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주제: 당신의 그룹 안에서 어떤 주제와 필요와 관심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까?  
(사회봉사, 암회복, 예술가들, 제자훈련 등)

문제: 당신은 이 소그룹의 유형 안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까?

사람들 : 어떤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유형의 그룹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될까요?

유익 : 어떤 사람들이 이 소그룹에서 유익을 얻게 될까요?

기타 : 당신이 가정그룹을 계획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는 다른 특별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모임시간, 익명성, 아이돌봄 등)

홍보 : 이 가정그룹에 관심을 갖게 될 사람들에게 이 모임을 어떻게 알게 할까요?

설명 : 뒷면에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소그룹에 관하여 200자 내외로 설명해 주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은 자유입니다.

## 직무내용 설명서: 예비리더

**요약** : 그룹의 구성원들을 준비시키고 편안하게 하고 인도하는 일에 그룹의 인도자를 돕는 것이 예비리더의 임무이다. 그럼으로써 인도자와 예비리더는 함께 그들의 그룹의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섬김의 기간** : 2회-4회 약속

**그룹인도자와의 관계** : 예비리더는 그룹의 리더와 함께 일한다.

### 필요한 기술

- 듣기
- 그룹에서 좋은 팀원이 되어서 소그룹의 경험과 훈련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과 함께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능력
- 우리 교회의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
- 소그룹과정에 대한 이해
-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
-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조원들에게 전화하여 용기를 줄 수 있는 능력
- 새로운 사람을 그룹에 초대할 수 있는 능력

### 구체적 임무

- 그룹의 조원들을 위해 기도하기
- 철저한 기도생활과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생활양식을 실천하기
- 모임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 도움을 위한 장소를 예비하기
  - 모임 중에 인도자가 요청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지 기꺼이 인도하기
  - 열린 토론과 정직한 나눔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기
- 당신자신의 그룹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준비하기
- 그룹에 관하여 협의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인도자와 만나기
-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참가하기
- 그룹의 인도자가 기대하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자신을 관리하기

## 모임준비 점검표 (리더)

이 점검표는 모임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 : 누가 올 것인가? 그들은 왜 오는가? 각 사람은 특별한 필요를 갖고 있는가? 그들의 기도제목은 무엇인가? 당신은 당신의 그룹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준비사항들** :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방, 좌석, 성경, 다과, 아이들 보기, 자료들 등에 관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준비를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가?

**관계** :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충분히 사랑을 주고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룹의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 당신을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스 브레이크, 자기소개, 이름표, 보살핌(Heart-Warmer) 등)

**연구/사역** : 성경연구를 완료하거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을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가? 당신이 사용할 질문을 작성하고 각 항목을 위한 시간을 평가하라

**기도** : 기도시간에 대한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임시간은 몇 시간? 기도는 어떤 기도를? 그리고 누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시간** : 이용가능한 시간은 언제이며 어떻게 그 시간들을 활용할 것인가? 당신은 정해진 모임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가? 실제적인 시작시간은 언제인가? 확실히 끝마치는 시간은 언제인가? 당신은 모임의 한 가지 순서에서 다음순서로 넘어갈 때, 이 순서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당신은 모임시간을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은 모임의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겨 주었는가?

## 직무내용 설명서: 소그룹 관리자

**요약** : 다섯 개의 소그룹과 인도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그룹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성취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섬김의 기간** : 1년

**사역관계** : 다섯 개의 그룹 리더들은 소그룹 관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 필요한 기술

- 소그룹의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할 수 있는 능력
- 용기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맞서야 할 필요가 있는 인도자에게 맞설 수 있고, 지도가 필요한 인도자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능력
- 시기적절함 - 필요한 형태와 날짜를 일반적인고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 그룹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이동이 필요한 때를 알기
- 듣기
- 그룹의 역동성에 관한 충분한 지식
- 그룹의 확장을 도울 수 있는 능력

### 구체적인 임무

- 그룹 인도자와의 개인적인 교류 월간 보고서 그리고 그룹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통해 그룹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 그룹 인도자들이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하기  
(영적성장을 이루는 것에는 자신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훈련을 받고 직무에 충실하고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 그리고 의사소통, 계획, 새로운 사람의 모집, 권한위임, 모임에 활력불어 넣기, 모범이 되기, 동기부여하기 등과 같은 인도자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포함된다.)
- 그룹인도자들이 자기 그룹의 예비리더를 발굴하고 그들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훈련하고 돕기
- 그룹 인도자들이 예비리더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그룹의 탄생을 준비하게 하기
-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그룹인도자들과 함께 참여하기
- 그룹에 사용될 자료를 선정하고 적용하는 일을 감독하기
- 그룹인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돕기. 협력그룹이나 다른 그룹으로 이동해야 할 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 감독을 받고 있는 각 그룹의 인도자들의 진보상황에 대한 보고를 담임목사 혹은 소그룹 총책임자에게 매달 보고함으로써 그룹 안에 있는 문제들이나 고무적인 일들을 소그룹 책임자가 잘 알 수 있게 하기
- 그룹에 새로 가입할 가망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 사역계획에 참여하고 외부로 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피기

## 자기평가 및 그룹평가

아래에 적힌 평가 자료는 당신이 소그룹을 평가하기 전에 미리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원 개개인이 각자 빈칸을 채운 후 함께 토론하는 것이 좋다.

♥ 당신이 참여한 바에 따라 솔직히 표시하라. 나는

- |   |  |
|---|--|
| <input type="checkbox"/> 참여하지 않았다.        | <input type="checkbox"/> 논쟁을 일삼았다.                 |
| <input type="checkbox"/> 내 의견을 적절히 피력했다.  | <input type="checkbox"/> 내 주장을 고집했다.               |
| <input type="checkbox"/> 내 고집을 관철했다.      | <input type="checkbox"/> 흥미가 없었다.                  |
| <input type="checkbox"/> 양보했다.            | <input type="checkbox"/> 상처를 받았다.                  |
| <input type="checkbox"/> 잘 해냈다.           |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원이 잘해내도록 도왔다.         |
|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마음을 열었다.   |
| <input type="checkbox"/> 변화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 <input type="checkbox"/> “그들이” “내” 그룹을 변화시켰다고 느꼈다. |


♥ 그룹이 얼마나 잘 운영되었는지 표시하라

평가 항목	아니다	그렇지 않다	상당히 잘 해냈다	대단히 잘 해냈다
모든 조원이 참여했다				
다른 조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의견에 대해 마음을 열었다				
조원들이 서로 협조했다				
의견의 차이점을 공개적으로 토론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문제를 성실하게 다루었다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했다				
우리의 목표를 성취했다				

## 그룹 내 상호작용 평가

소그룹 모임동안 당신이 감당한 역할을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라. 표시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증명해주는 것을 괄호 속에 적어보라. 그리고 서로서로 각자 발견한 것을 나누면서 이와 똑같이 해보라.

- |             |                              |
|-------------|------------------------------|
| ----- 1. (  | ) 함으로써 다른 조원이 말하도록 격려했다.     |
| ----- 2. (  | ) 와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
| ----- 3. (  | ) 할 때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           |
| ----- 4. (  | )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해 민감했다.       |
| ----- 5. (  | ) 동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냈다.        |
| ----- 6. (  | ) 로써 다른 사람을 도왔다.             |
| ----- 7. (  | ) 라고 말함으로써 이전에 행한 바를 상기시켰다.  |
| ----- 8. (  | ) 었을 때 모임을 독점했다.             |
| ----- 9. (  | ) 와 같은 새로운 생각을 제의했다.         |
| ----- 10. ( | )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
| ----- 11. ( | ) 때문에 활동을 저지했다.              |
| ----- 12. ( | ) 에 의해 토론이 결론에 도달하도록 도왔다.    |
| ----- 13. ( | ) 을 조원들에게 상기시켰다.             |
| ----- 14. ( | ) 에 의해 서로 다른 의견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
| ----- 15. ( | ) 와 같은 정보와 견해를 제공했다.         |
| ----- 16. ( | ) 었을 때 영웅적인 역할을 했다.          |
| ----- 17. ( | ) 었을 때 의미를 명백히 설명했다.         |
| ----- 18. ( | ) 을 위해 내용을 요약했다.             |

 위의 내용 가운데 당신이 1,2,7,9,15,17,18번에 표시했다면 그룹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것이다. 그룹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배운 바를 복습해야 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평가와 진보를 점검해야 한다. 그 그룹에서의 당신 역할에 의해 그룹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접적,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그룹으로서 함께 동역 하도록 도와 준 것은 4,6,10,14번으로 측정된다. 조원들이 서로서로 관심을 표명할 때 그 그룹은 결속되어 강력해 질 것이다. 어떤 지식을 제공하던가, 어떤 점을 확실히 이해시켜 주든가, 통찰력을 덧 붙여주든가, 혹은 문제의 요점을 규명하여 토론이 결론에 도달하도록 돕는 일에 모든 조원들이 참여했는가? 조원들이 제안한 것들이 모두 숙고되었는가? 상이한 의견을 가진 개인뿐 아니라 그룹 전체가 만족할 만큼 불일치점이 잘 처리되었는가? 사람들이 토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는가? 시간이 지혜롭게 사용되었는가? 건강하고 훌륭한 그룹이란 조원들이 함께 생각을 주고받고 잘 융합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과 해결점에 도달하는 그룹이다.

3,5,8,11,13,16번에 표시한 것은 당신과 당신의 그룹이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당신의 그룹 내에서 당신이나 다른 조원들이 당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조원들이 당신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느낀 결과일 것이다. 당신이 다른 조원들을 더 잘 알고, 또한 그들도 당신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라.



## 설문조사 - 사역기획 조사서

이 조사서는 당신이 그룹 활동 기획할 때 그룹의 구성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관해 협의할 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기획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 예 ☐ 아직 아니요

이 계획에 우리의 시간할당은 어떻게 할까요?

☐ 한 번에 끝내는 기획 ☐ 한 분기동안의 기획 ☐ 계속적인 기획

누가 우리를 돕게 할까요?

☐ 우리 서로 ☐ 우리 교회의 사람들 ☐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

사람들의 생활에서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인생의 단계	기본적인 필요	특별한 환경
유아기	육아	영적인 상실감
소년기	음식	가난/무주택
십대	의복	신체적 불구
청년	사랑/양육	질병
중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감정적인 스트레스/고통
노년	필요한 존재	가족문제

당신이 선택한 인생의 단계, 기본적인 필요, 특별한 환경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룹과 함께 당신의 꿈과 생각을 나눈 후 사역기획에 대한 일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십시오.

어느 한 가지 필요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윈 윈(win-win)전략을 시도하십시오. 만약 위의 항목들 중에 10대, 필요한 존재,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범주를 선택하였다면 그 소그룹은 결혼하지 않은 10대의 청소년들이 놀이방이나 고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 것입니다. 놀이방이나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이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곳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어떤 일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Ministry book

"마음열기와 보살핌(Ice-breakers & Heart wamers)" --국내 아이스브레이크 모임집(소그룹하우스)이 있습니다. 소그룹 속에서 공동체가 창조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책은 소그룹에서 회원들이 서로를 잘 알고 건강한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열기로 시작하고 적절한 마침 활동(보살핌)으로 모임을 끝마침으로써 여러분의 소그룹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에 올라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그룹을 위해서 마음 열기와 보살핌을 선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 설문조사 - 그룹인도자의 목표

당신의 소그룹의 목표를 기록하십시오. 후에 당신의 소그룹 관리자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관하여 당신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룹의 이름.....

날짜.....

1. 당신의 그룹이 몇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기를 원하십니까?
2. 새 그룹을 분리할 날짜는 언제 입니까?
3. 그룹을 분리할 때 당신의 그룹에 초청하고 싶은 새로운 사람의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4. 당신의 그룹에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5. 당신의 그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싶은 인원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6. 당신의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7. 당신의 소그룹이 성공했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8. 당신의 그룹 안에서 새로운 인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당신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9.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당신의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 설문조사 - 소그룹 앙케이트

소그룹에 관한 당신의 경험에 관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 앙케이트는 당신이 소그룹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 그룹의 이름.....  
날짜.....

1. 내가 볼 때 우리 그룹의 목적과 목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2. 우리의 목표의 성취가 이루어진 정도는.....이었습니다.

☐ 완벽하게      ☐ 거의 완벽할 정도로      ☐ 다소      ☐ 전혀

3. 나의 생각으로는 :

- ☐ 예    ☐ 아니오    우리 그룹의 구성원들은 좋은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 ☐ 예    ☐ 아니오    우리는 성경연구와 토론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 ☐ 예    ☐ 아니오    우리의 모임시간에는 은혜스러운 기도시간이 있었습니다.
- ☐ 예    ☐ 아니오    우리는 우리그룹에 다른 사람들을 자주 초대했습니다.
- ☐ 예    ☐ 아니오    우리는 함께 사역계획을 세웠습니다.

4. 모임에 참석하면서 느낀 생각은.....이었습니다.

- ☐ 매우 유익하다      ☐ 나의 삶과는 무관하다      ☐ 지루하다
- ☐ 지적인 자극이 된다      ☐ 인생을 변화 시킨다      ☐ 그저 그렇다
- ☐ 나에게 새롭다      ☐ 도전적이다      ☐ 기타

5. 나의 소그룹 경험 중에 가장 소중한 경험은?

6. 그 그룹이 좀 바꾸었으면 했던 일이 있었다면?

7. 나의 소그룹 경험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 영역은?

8. 당신은 당신의 소그룹을 친구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까? 왜 소개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왜 소개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 설문조사 - 소그룹에 관한 의견조사서

소그룹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사람들의 필요를 잘 공급해 주는 그룹이 많아져야 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아래에서 당신에 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밝혀 주신다면 당신이 선택한 필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룹의 리더와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작성하여 주시는 분에게는 당신의 삶에서 느끼는 필요를 공급해 줄 새로운 소그룹의 명단을 발표하여 당신이 그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 드릴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협조해 주실 수 있는 또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특정한 주제에 맞는 소그룹을 맡아 주실 수 있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룹의 리더를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좋은 사람을 찾아 리더로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예비조사

다음의 문장은 나와 나의 가족에 관하여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1개 이상 선택하셔도 됩니다).

- ☐ 우리 가족은 즐거운 성경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 ☐ 나는 믿음을 새롭게 할 과정이 필요합니다.
- ☐ 나는 교회에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 ☐ 나는 교회 내에서 다른 여성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 ☐ 나는 교회 내에서 다른 남성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 ☐ 나는 교회 내에서 다른 부부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 ☐ 나는 교회 내에서 다른 싱글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 ☐ 나는 우리교회를 더 깊이 알고 더욱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십대인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 집중조사

나는 나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 ☐ 욕아 : 때때로 그것은 산책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 ☐ 온전함 : 나는 균형 감각이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 시장 : 실제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 ☐ 믿음 : 나는 믿음의 기초를 배우고 싶습니다.
- ☐ 남자들의 문제 : 날씨가 축구경기에 관한 이야기 그 이상을 하고 싶습니다.
- ☐ 스트레스 : 나는 감정적으로 매마를 때 바른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 ☐ 가치관 :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싶습니다.
- ☐ 나는 누구인가? : 나의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약혼 : 우리가 서로 잘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신혼부부 : 신혼 첫해를 훌륭하게 맞고 싶습니다.
- ☐ 은사와 부르심 : 나는 나의 열정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습니다.
- ☐ 영적전쟁 : 전투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 도움발견

때때로 삶이 참 어렵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 습관적인 생활스타일 : 무료함 깨기
- ☐ 권위 : 나의 권위자 앞에서의 담대함
- ☐ 슬픔과 괴로움 : 고통가운데서 희망
- ☐ 실업 : 벗어나고 싶지만 출구가 없음
- ☐ 심대양육 : 성인으로 쉽게 들어가기
- ☐ 균형 있는 가족
- ☐ 사람과의 관계: 얽히고설킨 관계로부터 자유로움
- ☐ 중년 : 새로움의 위기
- ☐ 편부모

## 성경의 이해

성경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도와주는 풍부한 정보요 안내서입니다. 소그룹에서의 성경공부는 토론과 적용과 기도로 생동감 넘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다음과 같이 할 때 성경공부에 끌리게 될 것 같습니다.

- ☐ 그 주간동안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게 된다면
- ☐ 숙제가 없다면(나는 너무 바빠서..)

특별히 나는 성경의 다음주제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 |                                  |                                |
|----------------------------------|--------------------------------|
| <input type="checkbox"/> 마가복음    | <input type="checkbox"/> 빌립보서  |
| <input type="checkbox"/> 비유      | <input type="checkbox"/> 산상수훈  |
| <input type="checkbox"/> 에베소서    | <input type="checkbox"/> 디모데서  |
| <input type="checkbox"/> 기적들     | <input type="checkbox"/> 고린도전서 |
| <input type="checkbox"/> 예수님의 생애 | <input type="checkbox"/> 갈라디아서 |
| <input type="checkbox"/> 로마서     | <input type="checkbox"/> 요한1서  |
| <input type="checkbox"/> 요한계시록   | <input type="checkbox"/> 야고보서  |

## 새로운 도전을 위한 졸업

소그룹을 통해 당신의 삶을 풍요하게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여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소그룹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함께 보낸 후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당신의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나라에서 당신이 어떤 일로 섬길 수 있는 지 발견하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입니다.

소그룹이 내가 졸업하여 성장과 섬김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 ☐ 섬김 : 예수님을 나의 세계로 모시어 들임
- ☐ 훈련 : 나의 은사를 개발하는 일
- ☐ 네트워크 : 나의 꿈을 이룰 도구들을 모으는 일
- ☐ 기술개발 : 나의 사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
- ☐ 팀 세우기 : 한 그룹으로써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일
- ☐ 위기예방 : 다음여행을 위해 우리의 소그룹을 재정비 하는 일
- ☐ 리더십 : 소그룹리더가 되는 일

## 설문조사 -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리교회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잠깐 시간을 마련하여 당신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이 작성해 주신 이 설문지를 분석한 후 당신이 당신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 이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은밀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 예비조사

다음 항목 중에서 나와 나의 가족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선택 하십시오  
(선택사항이 2개 이상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 ☐ 나는 기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 ☐ 나는 나의 믿음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 ☐ 나는 교회에 더 깊이 소속되기 전에 교회의 성도들과 모임을 해보고 싶습니다.
- ☐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여성과 모임을 갖고 싶습니다.
- ☐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남성과 모임을 갖고 싶습니다.
- ☐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부부와 모임을 갖고 싶습니다.
- ☐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독신자와 모임을 갖고 싶습니다.
- ☐ 나는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교회에 관해 더 알고 싶습니다.
- ☐ 10대인 우리 아이들은 교회친구가 필요 합니다.

### 집중조사

나는 나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 ☐ 육아 : 때때로 그것은 산책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 ☐ 스트레스 : 나는 감정적으로 메마를 때 바른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 ☐ 온전함 : 나는 균형 감각이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 믿음 : 나는 믿음의 기초를 배우고 싶습니다.
- ☐ 남자들의 문제 : 날씨나 축구경기에 관한 이야기 그 이상을 하고 싶습니다.
- ☐ 가치관 :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싶습니다.
- ☐ 나는 누구인가? : 나의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약혼 : 우리가 서로 잘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신혼부부 : 신혼 첫해를 훌륭하게 맞고 싶습니다.

### 도움발견

때때로 삶이 참 어렵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   |   |
|---|---|
| <input type="checkbox"/> 습관적인 생활스타일 : 무료함 깨기  | <input type="checkbox"/> 취학전의 부모 : 유모차에서 유치원까지      |
| <input type="checkbox"/> 권위 : 나의 권위자 앞에서의 담대함 | <input type="checkbox"/> 사람과의 관계 : 얽히고설킨 관계로부터 자유로움 |
| <input type="checkbox"/> 슬픔과 괴로움 : 고통가운데서 희망  | <input type="checkbox"/> 재혼 : 새로운 배우자와의 만남          |
| <input type="checkbox"/> 고갈된 봉사활동 : 탈진된 봉사활동  | <input type="checkbox"/> 불임 : 아이를 낳기                |
| <input type="checkbox"/> 양육 : 사춘기의 극복         | <input type="checkbox"/> 중년 : 새로움의 위기               |
| <input type="checkbox"/> 장애자 : 장애자를 돌보기       | <input type="checkbox"/> 노년 : 인생의 절정에 이르기           |
| <input type="checkbox"/> 실업 : 벗어나고 싶지만 출구가 없음 | <input type="checkbox"/> 편부모 : 독립                   |
| <input type="checkbox"/> 이혼 : 이혼이후의 삶         |   |